
 인천광역시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자 2023년 5월 12일(금) 총 2매		
담당 부서 위생정책과	담 당 자 • 가공식품팀장 • 담당자	유경철 한은나래	☎440-2796 ☎440-2798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식품 안전의 날 맞아 시민 인식개선 나서
 - 12일, 시청 애플광장서 기념행사, 판매전, 체험행사 열려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5월 12일 인천시청 애플 광장에서 올해로 22주년을 맞는 ‘식품 안전의 날’을 맞아 관내 식품업계 및 식품위생 공무원, 시민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.

식품 안전의 날은 식품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식품 분야 업계 및 식품위생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각계의 자율적 노력을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.

지난 2002년부터 매해 5월 14일을 ‘식품 안전의 날’로, 전후 2주간(5. 7. ~ 5. 21.)을 ‘식품 안전 주간’으로 정하고 있으며, ‘범국민적 참여를 위한 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, 전시·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, 올해 22주년을 맞이했다.

이날 기념식은 ‘함께하는 식품 안전, 건강한 인천’이라는 주제로 △식품 안전 유공자 포상(시장상 10명, 시의회의장상 3명, 식품의약품

안전처장상 3명) △식품 안전 다짐 퍼포먼스 △인천 우수식품 홍보·판매전 △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.

특히, 인천 우수식품 홍보·판매전에는 (주)cj제일제당, (주)동서식품을 포함 36개 식품제조업체에서 200여 품목을 시중보다 10~30%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. 또한 떡 메치기 우리 떡 한마당 체험, 식품 안전 체험교구 전시·체험, 개인위생 체험, 식품 안전 퀴즈게임, 식중독·소비기한 표시제·HACCP 제도 등 식품 안전 홍보와 함께 금연상담 홍보·캠페인, 감염병 예방·홍보체험관 등 코로나19 전 보다 더욱 성대하게 행사가 열렸다.

유정복 시장은 “ ‘식품 안전의 날’을 맞아 안전한 식품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며, “지난해 인천의 식품산업 매출액은 약 4조 원으로 전국 특·광역시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히 높은 1위를 2년 연속 차지해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산업 역량을 보여줬다”고 강조했다. 이어 “다년간 축적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1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http://tv.incheon.go.kr/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